

“단일대오” vs “의혹 해결” 민주당 내부 갈등 고조

이재명 체포안 표결 이탈표 사태 후폭풍...친명-비명 대립 가속 친문·비명계 모임 의원들 잇따라 회동...당 내홍 대응방안 논의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무더기 이탈 표가 발생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친명(친 이재명)계는 ‘결집’과 ‘단일대오’를 강조한 반면, 비명(비 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정치적 결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친명 성향인 안민석 의원은 6일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이탈표가 상상외로 많이 나왔는데, 국민의 힘은 뚝뚝 붓쳤고 민주당은 분열했다”면서 “이탈 세력들은 이재명 대표 흔들기를 더 노골화하고 친명 비명 싸움이 격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기로 작정한 마당에 친명 대 비명 계파 목소리로 분열해 집안 싸움하면 폭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YTN 라디오에 나와 “체포동의안 과정에서 서로 ‘너무 심했다’ 하며 더 조심스러워진 것 같다. 치유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뚝뚝 뚝쳐 가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탈 표로) 이미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했다.

반대로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민주당 검은 먹구름의 1차적인 원인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의혹”이라며 “이를 분리해야 하

나 당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그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뒤로 물러서는 것이 당과 이 대표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당 대표에) 당선됐으면 방탄-팬덤 정당의 우러나 공격을 넘어설 리더십을 발휘할 책임이 있다”면서 “그런데 그게 안 되니, 당 대표 물러나야겠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고 판단할 문제지 몇 사람이 대표 물러나라고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사퇴까지는 아니더라도 내용을 수습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내분이 쉽게 정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내년 총선 공천을 둘러싸고 친명계와 비명계의 상호 신뢰가 상당 부분 무너졌다는 것이다. 친명계에서는 비명계

가 끝까지 이 대표의 거취를 흔들 것으로 의심하고 있고 비명계에는 친명계가 이 대표 체제를 내년 총선까지 유지하려 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친명계와 비명계의 대립 양상은 민심(당 지지율)의 향배와 이 대표의 기소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 과정에서 친명계와 비명계가 충돌하면서 내분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공천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사무총장 등을 교체하는 등 과감한 인적 쇄신을 통해 양측 간의 접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명계 핵심 인사가 전면에서 나서기 보다는 비명계이나 중도 진영 인사에 길을 터주는 것도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 권력 특성상 한 발 물러서면 이 대표 퇴진론의

물꼬가 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친명계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당내 비명계 인사들이 포진한 ‘민주당의 길’은 7일 만찬 회동을 갖고 향후 행보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주의 4.0’ 역시 조만간 당 내용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정치권에선 비명계와 친문 진영이 결집하면 친명계를 충분히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년 당원들과 함께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당을 위기로 몰아넣는 이기적인 모습만 보여줄 뿐”이라며 “지금 이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사색성’의 결단이다.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오로지 희생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 두번째)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박주민 의원으로부터 을지로위원회 백서를 전달받고 있다. /연협뉴스

여의도 브리핑

산불 방화범 징역 최대 15년 ‘처벌 강화’

양향자 ‘산림보호법’ 대표발의

양향자(무·광주 서구) 국회의원은 6일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방화범과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타인의 산림에까지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징역형의 형량을 늘리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피해를 입히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2810건으로 피해면적은 9315ha, 피해 금액은 5919억 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방화범의 검거 건수는 총 1153건으로 검거율이 41%에 그쳤다. 이마저도



전체 처벌의 97%가 벌금형(237건)과 기소유예(891건)로 징역형은 전체 처벌의 2%인 총 24건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산불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실상 산불 발생을 방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양향자 의원은 “작년 강원도·경상북도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 이재민분들이 입으신 고통이 치유되지 못했는데 올해도 크고작은 산불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재범율이 높은 방화범 죄의 특성상 강력한 처벌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재명 “尹, 어느나라 대통령인가...외교사 최대 치욕”

민중 광주시당·광주시의회, 친일 굴종 외교 중단 촉구

‘제3차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야당과 지역 정치권 등이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확대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전도 굴욕은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나라 태종에게 굴욕적인 항복선언을 한 것을 말한다.

이 대표는 “일본 전범 기업들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하고, 일본의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이며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묻는다.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라며 “국민은 이 굴욕적인 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환원하는 최악의 굴욕외교로 치욕스럽다”며 현 정부를 비난했다.

시당은 “윤석열 정권은 국익을 위한 결단이었다고 항변하는데, 대체 어느 나라 국익을 위한 결단 이냐”면서 “굴욕적인 친일 굴종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을 철저히”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회 소속 시의원들도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니 참담한 심정이다”면서 “대법원이 일본 가해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직접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는데도 현 정부가 이를 무력화시키고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청년기금’은 피해자들에게 배상 아닌 양국 청년의 교류 증진일 뿐이다”면서 “강제 징용 이슈와는 전혀 무관하며, 피해자들이 당초 요구해온 전범기업의 배상지급 참여, 일본 측의 진심어린 사과 부분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의회, 지역현안 대안 모색

토론회 잇따라...여수산단 작업복 세탁소·남도 증가문화 활성화 등

전남도의회와 지역 현안에 대한 토론회를 잇따라 열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대안 마련을 모색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주중섭(더민주·여수 6) 의원은 6일 오후 여수시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여수국가산단 작업복 세탁소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업체가 밀집한 여수 산단 노동자들의 작업복을 세탁하는 공동세탁소는 여수산단 내 미래혁신지구 복합문화센터 부지(330㎡)에 1층 짜리 규모로 조성 중이다. 여수시는 4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재태(더민주·나주 3) 의원은 8일 오후 남도

증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연다. 이 의원은 고학·종갓집의 의식주, 의례 등을 쉽게 이해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관광 자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규현(더민주·담양 2) 의원도 오는 10일 오후 전남형 기본소득과 관련한 토론회를 전남도의회에서 연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농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인 ‘농민수당’과 별개로 전남 기본 소득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봄에 떠나는 그립은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 투어나우 : 062-575-8019